

“봉사하러 온 아프리카 이젠 꿈이 됐어요”

아프리카 교사 양성…목포출신 비영리사단법인 HoE 박자연 대표

“저에게 아프리카는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매일 최선을 찾고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열심히 살면 그 결과가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을 제시해줘요. 도미노처럼요.”

목포출신으로 최근 출간된 ‘안녕, 아나베아’의 작가이자 비영리사단법인 HoE의 대표 박자연(여·35)씨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발견의 시간이었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녀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2006년, 우연히 한비아씨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에서 국제구호활동을 접하게 됐다.

“저는 법보다 클래식, 책상보다 운동장을 더 좋아했어요. 접수에 맞춰서 법대에 입학했는데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 많았거든요. 7년간 진로를 고민하다가 답을 찾은 게 구호활동이고 아프리카였죠.”

보장된 미래를 뒤로한 채, 그녀는 흘로 아프리카를 향해 떠났다. 건조한 사막지역, 다른 아프리카 지역보다 100년

이 뒤집어졌다고 평가받는 케냐 북부의 코어, 그곳은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조차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적박한 곳이었다.

마실 물도 부족했고, 석유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구해야 했다. 코어에 거주하는 ‘렌델레’ 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포기했을 거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프리카의 현장에서 그들과 삶을 함께하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의 꿈과 아프리카의 희망을 찾아갔다. 답은 의외로 쉬운 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후원자와 아프리카 아이들을 1대1로 결연시켜주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그뿐이란 생각이 들었죠. 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게 선생님이란 생각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녀는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와 아버지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고 회상했다. 그런 경험이 ‘아프리카의 교육자를 기르자’는 HoE(Hope of E-

ducation)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한 발판이 되었다. 학교 건물을 지어주는 데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육자’를 육성하는 단체였다.

1년여 시행착오를 거쳐 실제 HoE가 아프리카 코어를 찾은 때는 지난 2009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HoE는 국내 교사와 현지 교사를 매개해 주는 단기집중교사연수(교사 대 교사 연수프로그램)와 교사를 꿈꾸는 현지 학생들에게 사범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하트(heart)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프리카 미래를 위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HoE도 2012년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자, 자정기부금단체로 공인을 받았다. 또 이제 글로벌 NGO로서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제 책의 제목인 ‘아나베아(Aanvea)’는 ‘당신에게 평화가 함께하길’이란 뜻의 코어 인사말이에요. HoE를 통해 전달되는 희망의 인사가 모든 이에게 ‘네베(Nebey-평화)’라는 대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지켜봐주세요!”

/박정렬기자 halo@kwanju.co.kr



이낙연 의원 “장애인그림 유엔 전시 돋겠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9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적장애인을 그리는 김근태(56) 회백의 ‘100m 크기 장애인 그림’(본보 1월 18일자 18면)의 2015년 유엔 전시를 적극 돋겠다”고 밝혔다. ‘유엔 새천년개발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 날 오후 무안군 삼향읍 김화백의 작업실을 찾아 “반 총장에게 유엔 전시를 견의드리고 가급적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 LINC사업단 산학협력 워크숍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는 최근 광주지역 4개 대학 LINC사업단과 공동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부경찰, 총장로서 범죄예방활동



광주동부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최근 총장로 일대에서 여성청소년에게, 금나지구대 경찰관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단지를 배부하며 범죄예방활동을 펼쳤다.

〈광주동부경찰서 제공〉

김천에서의 5년…생각의 정원에서

김경천 김천과학대 총장 책 출판

제16대 국회의원과 광주 YWCA 사무총장을 지낸 김경천 김천과학대학교 총장이 책을 출간,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광주 YWCA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 북구 유동 광주 YWCA 대강당에서 김 총장의 저서 ‘생각의 정원에서(at the Think Garden)’ 출판기념회가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총 2권으로 구성된 이 책의 1권에는 김 총장이

김천에서 5년간 생활하며 작성한 수필과 김천과학대학 구성원들에게 대학의 크고 작은 행사를 정리해 격주로 보낸 ‘월요 아침편지’를 담았다.

2권에는 학교법인과 지역 기관장, 종교계, 경찰시민위원회 그리고 교직원, 재학생들이 김경천 총장을 만나 이야기, 인터뷰 기사 모음, 사진으로 보는 김천에서의 5년 등이 담겨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962년 광주 YWCA에 입사해 38년 동안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민주화 운동 등을 전개하며 사무총장까지 지냈다.

그는 50여 년간 YWCA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로 한국 YWCA 90주년 기념식에서 ‘박애스터 상’을 수상했고 광주 YWCA 9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김 총장은 이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의장, 제16대 국회의원(새천년 민주당·광주 동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8년 4월 김천과학대 총장에 취임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ju.co.kr

광주교육청 진로교육평가 ‘우수’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평가에서 우수교育청으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인센티브로 5억원을 지원받아 학생·학부모 진로상담과 진로·직업 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진로교육평가는 진로교육 계획 및 지역 특색사업,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현황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시교육청은 대구·대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연계 수업자료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학교 진로교육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또 진로·직업 체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직업 체험 프로그램 안내,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등도 호평받았다.

시교육청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밸런스율(103%)과 보직률(90.4%), 진로체험 운영률, 진로교육 학부모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박정옥기자 jwpark@kwanju.co.kr

봉사중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광주북부서 故김재의 경위

봉사활동을 하려 갔다가 돌연 숨을 거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고(故) 김재의 경위에 대해 순직이 최종 인정됐다.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7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재의 경위의 순직 처리를 위해 경찰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은 애초 김 경위가 봉사활동을 하려 갔다가 숨진 것은 일과 이외의 일로 판단, 순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포괄적으로 검토한 끝에



순직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경위는 근무를 마친 지난달 10일 정오께 광주시 광산구 한 장애인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려 갔다

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뒤 그대로 숨을 거뒀다.

한편 고 김 경위가 순직 처리됨에 따라 유족 보상금과 연금 등이 지급되고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보훈 연금도 받게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ju.co.kr

인사

◆목포시

◇6급 승진 ▲회계과 정유현 ▲자치행정과 박진홍 ▲사회복지과 김병국 ▲투자통상과 박운희 ▲건축행정과 김광미 ▲생활환경관리사무소 김영석 ▲세정과 박항 ▲삼학동 백숙숙 ▲용해동 손현우 ▲세정과 문소자 ▲북항환경관리과 제갈명 ▲경관사업과 최양선 ▲보건사업과 이희숙 ▲보건사업과 정미선 ▲보건사업과 이정화 ▲교통과 정필봉

◇6급 전보 ▲감사실 감사담당관 오형순 ▲기획예산과 기획담당 최혁주 ▲세정과 세정담당 조선아 ▲‘정수1담당 이명섭 ▲회계과 경리담당 최현모 ▲자치행정과 강여정 ▲경찰행정담당 김명준 ▲‘공무원단체담당 이승만 ▲‘도유관기관유지T/F팀장 한상선 ▲‘비서 노기창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민순수 ▲‘세라믹종합지원센터 김동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담당 김산 ▲‘장례관리담당 김덕룡 ▲기장복지과 노인복지담당 박내숙

◆전북 군산

◇사무관 승진 ▲정용기 ▲한대천 ▲이수진

그린알로에, 1억2천만원 이웃돕기 물품 기부



〈그린알로에(대표이사 정광숙)는 지난 18일 그린알로에 소정미 상무이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형재 부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광주 시장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 1억 원과 소년소녀 가장 돋기 성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그린알로에(대표이사 정광숙)는 지난 18일 그린알로에 소정미 상무이사는 “봉사가 광주에 있는 기업인 만큼, 지역 소년·소녀가장에 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 2000만원과 건강기능식품 330여 세트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김형윤)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22일(화) 오후 6시30분 광주상록회관 4층 062-361-2680.

종친회

▲전주리씨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회 1월 월례회의 및 정기총회 회장(이보희)=22일(화) 오전 11시 도 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1.

▲능성구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구연수) 월례회 및 신년 단배식=26일(토) 오전 11시 벽오동보리밥식당(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062-381-0019.

알림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

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모집

▲제15기 한국문화학교 수강생=관소리·민요교실·전통고전무용·풍수지리·관상학·칠·뜸운용·부보교육·행복한 가정만들기 등 11개 과목, 어린이·청소년 6종.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헤드진리, 가정 고민, 살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보사 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 주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527-770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대상자=언어발달 평가(표준화된 언어평가 도구 사용), 언어발달 교육(개별·모둠 수업 : 주1~2회, 회당 40분).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 가정의 자녀. 광주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070-8768-9461.

▲동구정신보건센터 주간지지 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정신건강강 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범

원 장례식장 30호실 02-3010-2000.

▲이금용씨 별세 정체(전북대 치의 학전문대학원 부교수)씨 부친상=발인 22일(화) 영암군 삼성장례식장 010-5608-0819.

▲류인필씨 별세 웅렬·영호·미경· 선옥씨 부친상 김상옥·이상희(코아 정밀)씨 빙부상=발인 23일(수) 전남 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5049.

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병우(전 전남대의대 학장)씨 별세 치관(남부대 교수)-대호(삼성화재 부부장)씨 부친상 조현종(국립광주박물관)씨 빙부상=발인 23일(수) 전남 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20-5049.